

7

피혁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폐암

성별	여	나이	61세	직종	도장공	직업관련성	낮음
----	---	----	-----	----	-----	-------	----

1 개 요

김○○(61세, 여)은 1972년 9월 피혁회사에 입사하여 도장반, 세빙반, 선별반 등에서 1993년 1월까지 20년 4개월 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1999년 11월에 기침과 객담이 나타났고, 12월에 폐암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김○○은 32세인 1972년 9월 피혁회사인 D사에 입사하여 도장반 10년, 세빙반 5년, 선별반 5년 등의 순서로 1993년 1월까지 20년을 근무하였다. D사에서는 상당량의 크롬을 사용하였고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의하면 1990년과 1991년 측정에서 크롬을 사용하는 부서가 아닌 석회반 또는 가지반에서도 노출기준 미만이라는 하나 크롬이 검출되었다.

3 의학적 소견

김○○은 1993년 퇴사후 재취업은 하지 않았다. 59세때인 1999년 11월에 계속되는 기침과 객담으로 개인의원에서 폐결핵 의증으로 치료 중 폐종양을 의심하였고 그 해 12월 C대학 D병원에서 폐암(선암, 좌우엽)을 진단받았다. 김○○은 흡연하지 않았으나 남편은 결혼할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흡연하고 있다.

4 고 찰

문헌 및 산업의학적 고찰에 의할 때 근로자 김○○이 근무한 D사와 같은 천연 또는 인조 피혁업체에서는 폐암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6가 크롬은 사용하지 않고 3가 크롬을 사용한다. 따라서 근로자 김○○의 경우 3가 크롬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크지만,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6가크롬에 노출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없었다.

5 결 론

김○○의 폐암(선암)은

- ① 폐암의 가장 흔한 원인인 흡연을 하지 않았고,
 - ② 질병 발생 27년 전부터 20여년 간 천연피혁업체에서 크롬에 노출되었으나,
 - ③ 이는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아니고 3가크롬이므로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